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모사업 FAQ

□ 신청접수

Q. NCAS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제출 시 필명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는 공공기금인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명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명이 있을 경우 별도 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 상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명(필명 혹은 활동명)

Q. NCAS에 개인/단체 아이디 둘 다 있는데 어느 것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아이디로 지원해야 합니다.

Q. 극작/연출 두 분야 모두 지원해도 되나요?

A. 아카데미 사업 내에서 여러 과정(창작자, 기획자(aPD), 무대예술) 및 세부분야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획과정과 무대예술과정의 경우, NCAS에 분야가 없는데 어느 분야로 지원해야 하나요?

A. '예술일반' 분야로 접속하신 후, 세부분야를 기획과정의 경우 '기획' 선택, 무대예술과정의 경우 '무대예술' 선택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Q. 다른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차세대(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동일한 프로젝트 및 작품(동일 리서치 주제, 동일 작품 등)으로 타 공공기금 지원사업과 중복선정 불가하며, 택일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각 지역문화재단 등의 중복지원 불가에 대한 안내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 문예진흥기금 공통조건 참조
>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예)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 '청년국제예술역량강화사업(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구성원기준),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에 동일한 리서치 및 프로젝트 주제

Q. 서울문화재단 서울청년예술단에 단체로 선정되었는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 개인 지원이 불가한가요?

A. 2019년에 청년예술지원사업(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기준))에 선정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양쪽 지원사업 모두에 선정된 경우에는 택일하셔야 합니다.

Q. 경력이 단절되어 발표한 작품이 없는 극작가가 지원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지원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학교 재학 중'이 아닌 '고졸'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활동 경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이 대학 졸업 이후의 재교육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학업에 매진해야하는 대학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창작산실로 이미 공연까지 올린 적이 있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Q. 문학분야로 AYAF 최종 직전 단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연극의 극작 분야로 다시 지원해도 될까요?
A. 기선정(수혜)받은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지원할 경우,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Q. 무대예술분야 현장경력 2년 기준이 왜 없어졌나요?
A. 참신한 연구주제를 가진 이는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대예술 전공자가 아니어도, 공연예술분야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Q. 문학 시 분야의 경우, 시조 작품으로도 지원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등단경력이 1개 이상일 경우, 어떤 경력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최초 등단이력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등단경력이 있을 경우, 지정양식의 지원신청서에 칸을 추가하여 등단이력을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Q. 지원서 항목의 조사·연구계획과 작품 창작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사·연구계획은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수행하는 조사·연구단계(2019.6~8월)에서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작품 창작계획은 중간발표단계(2019.9월)를 거쳐 최종발표단계(2020.1월~3월)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한 구상과 실현 계획입니다.

Q. 추후 선발되면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창작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작품을 변경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Q. 지원신청서 내 조사·연구 및 작품 창작 계획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A. 사업기간 내에 어느 단계/수준까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지, 이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작

성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원신청 이전 관련 주제로 사전 리서치, 쇼케이스 등 진행내용이 있다면 이전 진행된 내용과 함께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Q. 조사·연구지원금 집행 계획'과 '중간발표지원금 집행 계획'의 세부항목이나,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조사연구지원금(전 분야 해당)'은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연구생이 작품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밑작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중간발표지원금(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 해당)'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창작하실 작품의 중간발표(쇼케이스 형식)에 집행할 비용입니다.

<조사연구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ㅇ 자문멘토링 사례비, 회의실 및 연습실 대관료, 국내외 리서치 실비(숙박, 교통비), 연구자료(도서·간행물 등) 구입비, 공연·전시·축제·워크숍 등 관람(참가)비

<중간발표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ㅇ 배우 및 스태프 사례비, 무대장비 임차비, 회의실 및 연습실 대관료, 자문 및 멘토링 사례비

※ 불인정 금액

인정불가 경비	세부내역
현금인출	연구비통장외에 다른 용도 사용금지
지원 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인건비,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 목적의 경비	시설비, 전화설비, 자산취득 등
기타사항	식비, 다과비, 행사 기념품 구입 등 (간접경비 부분)

□ 기타 문의사항

Q. 중간발표까지 원고 및 작품이 완성되어야 하나요?

A. 완전한 완성본은 아니어도 최종공연에서 할 공연에 대해 점검받을 수 있는 단계여야 합니다. 음악분야의 경우, 작품 아이디어의 구체화, 악기 편성, 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악장에 대한 음악·극계획 그리고 20분 내외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작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집필중인 원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평가가 가능할 정도의 분량과 형식이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Q. 공연을 하게 되면 극작가가 연출까지 직접 해야하나요?

A. 지원금으로 연출부를 섭외하면 됩니다.

Q. 연출 분야가 극작 분야의 선정자들의 대본으로 연계해서 작품을 만드는 건가요?

A. 아닙니다.

Q. 제출할 작품이 신작인데, 이 작품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선정된 후 새 작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A.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Q. 이미 정식, 유료로 공연된 적이 있는 작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이미 공연된 적이 있는 작품으로는 지원 불가합니다.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tryout공연, 쇼케이스는 공연되지 않은 작품으로 간주

Q. 기존의 작품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해당 작품 창작 전,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Q. 극음악(오페라, 무용음악, 연극음악)에서 무용수, 배우, 가수 등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야 하나요?

A. 공연 방식은 자유이며, 중간발표단계 이후 최종 결정된 지원액으로 해당 인력을 섭외하면 됩니다. 오페라 가수, 무용수, 배우가 공연에 직접 참여할 경우 모든 섭외는 작곡가가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 영상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극을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음악분야 지원대상에서 기악과 융복합 관현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9.4.1. 수정)

구분	기존('19.3.25. 공고)	수정('19.4.1. 수정)
기악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2관 편성, 타악기 최대 3인, 피아노 최대 1대, 하프 최대 1대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2관 편성
융복합 관현악	국악과 양악의 혼합, 기악과 전자음향의 혼합 등 오케스트라 최대 2관 편성	국악과 양악의 혼합, 기악과 전자음향의 혼합 등 편성 및 악기구성 제한 없음

A. 융복합 관현악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르(국악과 양악, 악기와 전자음향 등)가 융합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하시고자 한다면 융복합 관현악 분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